빙수의 계절 전남 애플망고의 계절

농협 전남본부, 보성·장흥 등서 올해 20t 생산…전년대비 6배

아열대 '오매향'·과실브랜드'상큼애' 지난해 151억 매출 올려

'빙수의 계절'을 맞아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빙수 인기 재료로 떠오른 애플망고 생산량을 올해 6배 늘리기로 했다.

22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 아열대 작목 광역브랜드인 '오매향' 애플망고는 올해 20t 출하할 예정으로, 이는 전년 출하량(3.4t)의 6배 수준이다. 지난해 '오매향' 애플망고 매출은 1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보성과 장흥지역 농가들이 '오매향' 애플망고 출하에 동참한다.

전남은 기온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바나나와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 애플망고는 수입산과 달리 완숙 후 수확하므로 풍미와 당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19일 영광군 염산면의 한 애플망고 재배농장을 방문해 수확기가 임박한 애플망고의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또 '오매향' 애플망고 판매 확대를 위한 광역브랜드 홍보활동과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방안을 협의했다.

애플망고 농장주 나광진(61)씨는 5000㎡(약 1500평)의 비닐온실에 2000주를 무농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오는 6월10일께부터 약 두 달간 홍망고 품종 8t을 수확할 예정이다.

애플망고와 함께 전남의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로 꼽히는 비파도 지난 3월 말 처음 출하됐다.

완도농협과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7농가가 온실 2ha 규모에서 생산하는 비파 7t을 출하할 예정이다.

'오매향' 비파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시장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파를 아열대 과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완도지역에서는 총 114농가가 35ha 규모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해 '오매향'과 과실브랜드 '상큼애'를 내건 광역브랜드 매출은 151억6600만원으로, 전년 실적(133억6700만원)보다 13.5%(17억99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 목표는 143억원이었는데, 목표를 106.1% 초과 달성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상큼애' 브랜드 사업에 18개 농협이 참여했으며, '오매향'에는 3개 농협이 동참했다.

박서홍(왼쪽 세 번째) 농협 전남본부장이 지난 19일 영광군 염산면 한 애플망고 농장을 찾아 수확기를 맞은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전남농협 제공〉

올해는 '상큼애' 브랜드 사업 품목은 딸기와 블루베리, 체리, 샤인머스켓 등 4개를 추가한 9개로 늘리며 내실을 다진다.

'오매향'은 올해도 바나나, 비파, 애플망고 사업을 추진하며 보성과 장흥이 애플망고 출하에 동참할 방침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아열대 작목 재배적지인 전남의 애플망고를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에 맞춰 신소득 작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원금의 4배

전남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신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전남도가 조선사에 신규 입사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2022년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1년 동안 150만원을 적립하면 전남도가 150만원, 정부가 300만원을 지원, 1년을 근속한 청년이 만기 공제금으로 원금의 4배인 600만원을 받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사내협력사에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올해 총 22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수준을 준용하면서 산업 현장 여건에 맞게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근속기간이 짧은 조선업의 상황을 반영해 적립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목포에 있는 전남인력개발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정운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조선업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글로벌 해상풍력기업, 전남 인재 우선 채용

전남도-덴마크 CIP-유관기관-대학 '공급망 구축·인재 양성' 협약

신안·영광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덴마크 기업 CIP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가 전남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전남도와 CIP는 지난 19일 전남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전력기자재협회, 현대스틸산업, 목포신항만운영(주), 대한조선(주), 목포대, 목포해양대, 녹색에너지연구원 등과 '전남지역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CIP가 신안·영광 일원에서 추진 중인 4GW 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과 관련, 전남에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해상풍력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전남지역 인재 우선 채용 ▲공급망 구축 시 전남지역 기업 적극 참여 ▲해상풍력 관련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 추진 ▲연구시설 이용 및 기술정보 교류 ▲해상풍력 세미나 개최 및 기술자문 등이다.

협약식은 이날 목포에 있는 CIP 전남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진행됐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야콥 폴슨 CIP 회장, 유태승 CIP/COP 한국법인 공동대표,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대사, 김원이 국회의원, 해상풍력 유관기관 및 지역대학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야콥 폴슨 회장은 "CIP는 신안에 3GW, 영광에 1GW 규모 고정식 및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관 기업의 공급망을 구축,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대학을 통한 해상풍력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딸기 직접 땄어요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북광주농협이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용강동 농가에서 열린 '건국동 어린이 딸기 수확 체험' 행사에서 어린이 농촌체험단이 딸기를 직접 따보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장성 평림댐 환경 정화 주민 일자리 창출까지

수자원공사 주민 자율참여사업

한국수자원공사가 장성 평림댐 쓰레기 수거 사업을 벌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와 평림참샘물협동조합은 최근 '평림댐 상류 하천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 위수탁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평림댐 상류 하천의 물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자는 내용을 담았다. '댐상류 하천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하천쓰레기를 관리하며 깨끗한 하천 수질을 보장받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루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장성 평림댐 인근 주민들은 지난 4월 평림참샘물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전남북부권지사와 협약을 맺고 댐상류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수거·관리하게 된다. /백희준 기자 bhj@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